2017년도 제21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시 2017년 11월 9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함 준 호 위 원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윤 면 식 위 원(부총재)

- 4. 결석위원 없 음
- 5. 참 여 자 하 성 감 사 김 민 호 부총재보

허 진 호 부총재보 전 승 철 부총재보

신 호 순 부총재보 서 봉 국 외자운용원장

신 운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

이 환 석 금융시장국장 이 승 헌 국제국장

손 욱 경제연구원장 장 정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병 희 공보관 이 동 원 의사팀장

6. 회의경과

<의 안 제34호 -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7년 11월)(안)>

-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96조에 의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7년 11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보고서와 관련하여 10월 30일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하였음.

우선. 보고서의 발간계획 수립 및 작성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들은 위원협의회

개최에 앞서 제III장에서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성장과 물가 간 관계변화 및 원인을 수록하고, 주택 및 가계부채 관련 정부대책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정부대책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서술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음으로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음.

먼저 일부 위원은 제비장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에서의 주요 고려사항 중 성장과 물가 간 관계변화 및 원인의 경우 어려운 이론적 용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한 일부 위원들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원인의 하나로 초안에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들었는데 양자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지 않아 보이므로 그 대신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저물가를 그 원인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은 제III장에서의 주요 고려사항 중 주택 및 가계부채 관련 정부대책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부대책으로 인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대해서도 서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들은 제III장에서의 주요 고려사항 중 북한 리스크가 금융·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북한 리스크가 어떤 파급경로를 통해 시장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그리고 일부 위원은 다음번 보고서 작성 시부터 재정정책 운영상황 등을 보고 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관련부서에서는 이상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보고서를 수정·보 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이어서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당행의 핵심보고서로서 대단히 중요한 만큼 그 내용과 형식, 발간시기 등에 대하여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7년 11월)(생략)